

책 읽어 주는 기계

지은이 잉그리드 샤베르

그린이 라울 구리디

옮긴이 김보희

크기 210 *250 230*300

가격 17,000원

쪽수 40쪽 (양장본)

펴낸날 2026년 1월 20일

펴낸곳 지구의아침

교과연계

- 국어 1-1 (1) 글자를 만들어요 | (3) 낱말과 친해져요
 1-2 (2)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요 | 2-1 (6)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
 2-2 (1) 장면을 상상하며 읽은 책을 소개해요 | 3-1 (4)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
 4-1 (1) 깊이 있게 읽어요 | (4)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
 5-1 (1)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| (9)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
 6-1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| 6-2 (5)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
 - 바슬즐1-2 | (3) 상상
 - 도덕 4 | (5) 바람직한 디지털 사회
 - 도덕 5 | (5)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
 - 도덕 6 | (1)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
- #책 #독서 #읽기 #문자 #단어 #기계 #성장 #상상 #발견 #호기심 #자유 #능동 #가치
#선택 #소통 #책읽어주는기계 #그림책 #독서교육 #능동적인독서 #상상 #주체적인삶
#디지털시대 #미디어리터러시 #책의가치 #아날로그감성 #기술문명비판 #어린이교육

도서 소개

책을 너무 사랑하지만, 책을 읽는 건 노!

우리는 모두 편리함을 추구하지만, 때로는 그 편리함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. 「책 읽어 주는 기계」는 책을 사랑하지만 직접 읽는 것은 '구식'이라고 여기는 부끄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, 스스로 책을 읽는 기쁨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냅니다.

첨단 기기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세상에서, 아이들은 '편리함'이 가져오는 환상과 그 이면에 감춰진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기계가 고장 나면서 겪는 혼란과 다시 '읽기'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, 우리 아이들은 능동적인 독서의 중요성과 상상력을 펼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읽어버린 '진짜 독서'의 재미를 되찾는 부끄빌 사람들의 이야기는,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.

주제어

- 책 ● 기계 ● 독서 ● 편리함 ● 상상력 ● 읽기 ● 듣기 ● 이야기 ● 즐거움 ● 주체성

책 읽기 전

■ 생각 나누기

- ‘책’이란 무엇일까요? ‘읽기’와 ‘듣기’는 어떻게 다를까요? 각자 경험을 말해 보아요.
- 세상에는 어떤 기계가 있을까요?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움받는 기계들을 떠올려 보고,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기계를 발표해 봅시다.
- 내가 가장 좋아하는 ‘이야기’는 무엇인가요? 그 이야기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?
예) 엄마가 읽어 주었는지, 태블릿으로 들었는지, 직접 책으로 읽었는지 등

■ 그림으로 표현해요

만약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‘마법 기계’가 있다면,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?
그림으로 그려 보고 그 기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.

책 읽는 중

■ 부챙빌 주민들의 마음 들여다보기

- 책을 아주 사랑하는 부챙빌 사람들은 책을 읽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나요?
-

- 부챙빌 사람들은 왜 책을 읽지 않았나요?
-

- ‘책 읽어 주는 기계’가 고장 났을 때, 부챙빌 주민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 책 속 그림에서 주민들의 표정을 찾아보고,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지 말풍선에 써 보세요.



■ 시몬 할머니의 선택

- 사람들이 기계를 찾아 책을 들을 동안 시몬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?

- 시몬 할머니는 왜 ‘책 읽어 주는 기계’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을까요?

- 시몬 할머니는 왜 마을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았나요?

-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 뒤 ‘책 읽는 기계’는 어떻게 되었나요?

책 읽고 나서

■ 부랭빌의 달라진 모습 상상하기

- 기계가 고장 난 후, 부랭빌 주민들은 시몬 할머니에게 다시 책 읽는 법을 배웠어요. 책 속에서 시몬 할머니와 주민들이 함께 읽고 배우는 모습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
-
-

- 만약 ‘책 읽어 주는 기계’가 다시는 고쳐지지 않는다면, 부랭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?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.
-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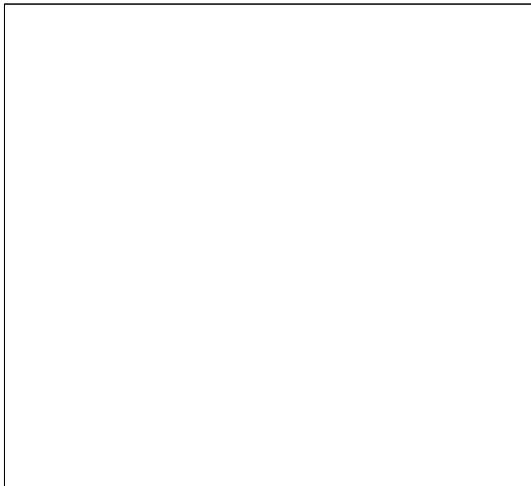
■ 시몬 할머니에게 배우기

- 시몬 할머니는 왜 마을 사람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?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-
-

- 여러분 주변에 시몬 할머니처럼 자기만의 특별한 방식을 고집하는 어른이나 친구가 있나요? 그분이나 친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.
-
-

■ 듣는 책과 읽는 책, 나만의 발견

- 이 책에는 '책을 읽어 주는 기계'를 통해 이야기를 '듣는' 사람들과 시몬 할머니처럼 직접 '읽는' 사람이 나와요.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을 때와 직접 읽을 때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꼈나요? 어느 쪽이 더 좋고, 왜 그런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.



- 책장을 넘기는 손의 느낌이나 종이 냄새는 어떤가요?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'즐거움'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.

- 책을 읽고 난 후, 내가 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? 직접 책을 읽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아봅시다.

■ 나만의 책 읽기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

'책 읽어 주는 기계'가 사라진 부랭빌 마을을 위해, 사람들이 '책 읽기'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만의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. 어떤 그림과 글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?